

무료대여하고 팬파티 열고... '갤 S10' 체험마케팅 후끈

삼성전자

익선동 갤럭시 스튜디오서
신분증 맡기고 2시간 대여

체험 인증샷 업로드 이벤트
전국 각지서 팬파티도 진행

삼성전자의 상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10의 사전 예약 판매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전자는 소비자 체험 마케팅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S10 무료 대여, 관련 파티 진행, 체험 인증 사진 업로드 이벤트 등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고 있다.

3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서울 종로구 익선동에 위치한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갤럭시 S10을 무료로 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갤럭시 스튜디오는 삼성전자가 S10을 전시해놓고 소비자가 스마트폰의 기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이다.

오래된 한옥 사이로 다양한 카페와 음식점이 즐비한 익선동은 평일과 주말 모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켄스톤에서 진행된 '갤럭시 팬 파티'에서 요리하는 연출가 이육정 PD가 갤럭시 팬들에게 '갤럭시 S10'과 함께 하는 푸드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두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꼽힌다. 익선동의 갤럭시 스튜디오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체험의 기회를 넓혔다. 스튜디오에 방문해 신분증을 맡기면 2시간 동안 S10을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기존 스튜디오에서는 스마트폰이 고정되어 있어 한 자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대여 전 S10에 적용된 기능 설명을 듣고 S10으로 찍은 사진 전시회를 감상하는 과정은 필수다.

S10을 빌린 소비자는 자유롭게 익선동

곳곳을 돌아다니며 S10의 기능을 체험할 수 있다. 대여와 함께 갤럭시 스튜디오와 제휴된 익선동의 음식점, 카페의 3000원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2일 익선동을 찾은 김진실(22) 씨는 "익선동 골목을 돌아다니는데 큰 규모의 행사장이 있어서 구경할 겸 들어갔다 갤럭시 S10의 강점을 보고 흥미를 느껴 체험해봤다"며 "2시간 동안 내 핸드폰처럼 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S10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광주 동구 커뷰에서 진행된 '갤럭시 팬 파티' 현장에서 파티 총괄 디렉팅을 맡은 아티스트 지코(ZICO)가 갤럭시 팬들과 함께 공연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 디지털프라자는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5일까지 S10 체험 후 인증샷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에어드레서, 갤럭시 탭, 허만 카돈 스피커, 아이스크림 쿠폰 등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갤럭시 S10을 태그한 게시물 1만 1400여 건에 달한다.

갤럭시 사용자를 초대해 S10 기능 소개, 공연, 요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갤럭시 팬 파티도 지난달 28일 부산을 시

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갤럭시 팬 파티에서는 다이나믹 AMOLED 디스플레이, 트리플 카메라, 무선 배터리 공유 등 S10의 새로운 기능을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번 파티를 지난 10년간 갤럭시를 사랑해준 팬들이 주인공으로, 직접 참여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인기 뮤지션이자 갤럭시의 팬인 지코가 총괄 디렉팅을 맡아 독보적인 무대 연출과 공연 아이디어를 기획했고, 공간 디자이너 문승지가 팬 파티 공간을 연출하고, 요리하는 연출가 이육정 PD가 음식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했다.

가수 10cm는 갤럭시 10년을 맞아 갤럭시 팬의 스토리로 만든 음원을 최초로 공개해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이외에도 크러쉬, 페노메코, 벤이 감성적인 무대를 꾸몄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도 갤럭시 팬의 자부심과 팬심을 높일 수 있는 팬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오른쪽)과 팀 회트게스(왼쪽) 도이치텔레콤 회장이 협약식 체결 후 MWC SK텔레콤 부스를 체험하고 있다. /SK텔레콤

SKT, 獨 도이치텔레콤과 5G 노하우 공유

MWC19서 공동개발 업무협약 체결
미디어·보안 혁신 기술로 유럽 공략

SK텔레콤이 유럽 최대 통신사와 넷워크, 미디어, 보안 등 기술 관련 개발 협력에 나선다.

SK텔레콤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19'에서 도이치텔레콤과 5G 네트워크, 미디어, 보안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SK텔레콤은 도이치텔레콤과 5G 상용화 노하우와 함께 네트워크 운용 기술을 공유한다. 또 차세대 미디어 기술, 보안

기술 등에 대한 공동 개발 및 사업 협력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텔레콤과 도이치텔레콤은 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유럽의 관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양사는 R&D 합작회사 설립 검토 등 사업 개발 및 시장 개척을 위한 구체적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도이치텔레콤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시장에 이어 유럽 시장에서도 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

LGU+ 9900원 '영상 뮤직 알찬패키지' 출시

LG유플러스는 월 기본료 9900원(부가세 포함)으로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미디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영상 뮤직 알찬패키지'를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패키지는 매달 비디오 전용 데이터 50기가바이트(GB)와 함께 U+모바일tv 기본 월정액, U+영화월정액, 통화연결음 월정액, 통화연결음 및 벨소리 총 4건, 지니뮤직 앱 음악감상 혜택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5월 31일까지 패키지 가입자 중 1개월 이상 가입을 유지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후 1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달 U+모바일tv에서 사용할 수 있

는 유료 콘텐츠 주문형비디오(VOD) 쿠폰 1만원권을 증정한다.

50GB 상당의 비디오 전용 데이터로는 자사의 스포츠 및 공연 미디어 서비스인 'U+프로야구', 'U+골프', 'U+아이돌라이브'까지 총 5개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할 수 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기존 'U+비디오 포털'의 명칭을 'U+모바일tv'로 바꾸고 이용자 인터페이스(UI)와 고객맞춤 추천 기능을 적용해 선보였다.

패키지는 전국 대리점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최정우 포스코 회장, 쌍방향 소통창구 확대

'기업시민 러브레터' 시즌 2 시작
사회적 이슈 해결 아이디어 접수
공개답변 게시판 신설·공유도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소통을 통한 경영혁신을 이끌기 위해 쌍방향 소통창구인 '기업시민 러브레터'를 강화한다. 포스코는 3월 4일 '기업시민 러브레터' 시즌2를 시작한다.

'기업시민 러브레터'는 기존 '러브레터'보다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러브레터는 익명으로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해 포스코에 바라는 개선사항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이었다면, '기업시민 러브레터'는 익명성은 보장하되 원하면 내용의 수정이나 공개도 가능토록 했다. 작성자는 의견 등록 후 진행상황과 개선결과를 이메일을 통해 안내받고,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게 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

또 공개 답변 게시판을 신설해 개선결과를 대내외에 알리고, 접수된 글의 제목을 작성자 동의 하에 공개게시판에 공유 가능토록 했다.

지난 러브레터가 개혁과제 발굴에 집중했다면, 이번 '기업시민 러브레터'는 포스코의 경영이념인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경영이념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 발굴을 주된 목표로, 저출산과 청년실업 등 사회적

이슈해결에 필요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위주로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해 7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러브레터'를 통해 미래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대내외 의견을 수렴했으며 총 3300여건의 의견을 접수, 취입 100일을 맞은 지난해 11월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러브레터 접수 의견을 통해 포스코는 경영이념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실천 차원에서 포스코그룹 보유 휴양시설의 협력사 공동 사용, 협력사 직원 편의성을 위한 제철소 차량 출입방법 및 근무 환경 개선, 실형 중시 기업문화 확립을 위한 보고 개선, 직급 레벨 표기 개선 등을 즉시 실천한 바 있다.

최정우 회장은 "새롭게 단장한 '기업시민 러브레터'를 통해 사회 이슈 해결에 자발적으로 적극 동참함으로써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하며, 더욱 시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최첨단 ICT로 고온건조 사막기후 극복

KT, UAE 스마트팜 출범 100일

KT는 27일(현지시간) UAE 샤르자 코르파칸에서 'UAE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 출범 100여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축경과 및 진행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3일 밝혔다.

KT는 지난해 11월 18일 UAE를 구성하는 7개 도후국 중 아부다비, 두바이에 이어 셋째로 큰 샤르자의 코르파칸 지역에 글로벌 1호 스마트팜으로 UAE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을 열었다. 이곳은 KT와 샤르자 인도주의센터(SCHS)가 공동 구축했다.

UAE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은 약 600㎡(180평) 규모로 장애인에게 최적화

된 시설과 첨단 ICT를 적용했다. 증강현실(AR) 글라스를 통해 외부에 있는 관리자가 현장에 있는 작업자에게 원격으로 실시간 교육을 하거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내부 및 외부 센서를 통해 모든 시설을 PC나 모바일 앱으로 원격 제어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가능하다.

KT는 농업용지와 관개시설이 부족한 UAE의 지리적 특성과 연 강수량 100mm 미만에 40도가 넘는 사막기후를 극복하기 위해 자재를 한국에서 공수해왔다.

UAE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은 온도를 낮추고, 농업용수 효율에 초점을 맞춰 시설을 조성하고, 첨단 ICT 시스템을 적용했다. 하우스 외부는 빛 투과율이 높으면서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폴리카

보네이트를 사용했으며, 에어캡을 이용해 외부 열기의 내부 유입을 줄였다.

이 스마트팜은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물로 농사를 짓고 있다. 이를 위해 작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양액 시스템을 도입했다. 양액 시스템은 물과 영양액을 혼합해 재배시설로 자동 공급해준다. KT가 스마트팜을 운영한 결과 물순환 시스템을 통해 물을 70%가량 재활용할 수 있었다.

KT는 AR글라스를 활용해 시설 운영자에게 ICT 교육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작물재배 교육을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ICT 센서를 바탕으로 하우스 내부와 외부의 데이터를 수집해 원격으로 시설을 제어하고 있다.

KT는 글로벌 1호 스마트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마트팜을 비롯한 농업 ICT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나인 기자